

대행 스님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진실하게 하는 것이 그냥 부처님 법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저는 스님 법문에서 주인공에게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주인공은 제 몸속에 있는 것인지, 또 우주의 허공 법계에 꽉 찬 것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 주인공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은 염불이나 기도는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주인공에게 맡길 경우가 된다면 그렇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큰스님 뭐, 문은 여기도 많죠. 염불을 해서 가는 문이 있고, 경을 읽어서 가는 문이 있고, 선을 해서 가는 문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이, 이 문 저 문이 많죠. 그러나 문밖에 나가면 그저 다른 문이 아니죠. 주인공이, 이 마음 자체가 내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허공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댁이 말을 하는 것도 주인공이 없으면 말을 못 해요. 그걸로써 입증을 할 수 있죠.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어라 이겁니다. 그게 자성이죠. 자성이 모두, 이 자성불이 공해서 하나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붙잡을 것도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고 여전히 움죽거리게 하고, 여전히 이 생각 저 생각 나게 하고, 요것조것 보게 하고 요것조것 듣게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이 안 됩니까?

질문자3(남)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룩하신 법신불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법신불, 주인공에게는 '주인공, 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주인공이시여,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고 하셔서 저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법신불이시여!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좀 있거든요.

큰스님 그거는 바깥으로 하는 기복입니다. 그렇게 항상 '해 주십시오' 한다면 노예 생활에 불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해 놓은 일, 우주 법계에서 알고 있는 이상 아무리 말을 해도 공덕은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실천은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길을 걸어가다가 엎드러지면 그 자리 땅을 짚고 일어나죠. 딴 데를 짚고 일어나는 법 없죠. 거기서 나오는 거라면 거기서 해결을 하겠지 딴 데서 해결을 해 주고 뺏어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부터 알아야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갈 것도 알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갈 것을 아는 사람이면 지금 현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법신이시여,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 주시오.'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하나도 이익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바깥으로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켜 온 그 장본인이 바로 자기니까,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안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생사도 거기에 있고, 일체 만법을 응용하는 것도 거기에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사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나는 몸뚱이를 가진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돈도 있다면 나는 관리인이지 내 것이 아니다, 주인 거지. 모든 걸 주인에게 일임시키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해 주시오'가 아니에요. '해 주시오'는 벌써 둘로 보고 비는 게 되죠. 그러나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바로 직접 들어가는 행입니다. 실천이고요.

질문자3(남) 스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스님 이거를 (물컵을 들어 보이시고) 보고서, 만약에 여기 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물이 있는 걸 봤어. 그런데 집어 먹을 수 없고 집어 줄 수 없다면 그건 보고 듣고 한 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평등도 평등이요, 불평등 또한 평등이라
꽉 찬 평등 속에 평등 찾을 길 없어라
가을 추수 끝난 후 흰 쌀밥 지어 먹으니
봄 나비 훨훨 날아 그 장단에 춤을 추네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큰스님 (오른손 주먹으로 법상을 한 번 치시고 잠시 후) 이걸로써 대답이야.

질문자4(남) 방금 큰스님이 하신 대답을 그전에 맛을 본 거 같습니다.

큰스님 맛을 봤다면 맛을 벌써 못 봤어. 웬 그렇게 말이 많어! 말로 깨트리는 게 되지 않아! 어휴.

질문자5(남) 저는 평생 세속의 학문을 탐구를 해 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간 대학원생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량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주인공에 맡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학문과 지식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량심과 분별심을 기르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세계로 들어간다면 한마음 수행법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큰스님 하하하. 세상살이 만사가 다 학생의 마음에 가설이, 직결이 돼 있어. 그러니 어떤 걸 한들 부처님 법이 아니겠는가. 책을 보나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뿌리도 뿌리가 있어야 몸이 있고 몸이 있어야 행이 있듯이 모든 건 마음의 주인공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 모든 것을 해도 함이 없이 하라 이 소리지. 당신 송장 덩어리가 보는 게 아니거든. 눈을 보게 하고 귀를 뜨이게 하고, 손을 움죽거리게 하고 몸을 움죽거리게, 전체 움죽거리게 하니 보는 거 아냐. 그러니 그건 누가 보는 거야?

그러니 '이거는 망상이고 이거는 망상이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